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수해피해 거제도서 복구 봉사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9-08 00:05:00 수정 : 2026-09-08 00:06:27 지면 : 2026-09-08 (15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를 찾아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를 찾아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누적 968.1mm의 폭우로 산사태와 주택·전통시장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순철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 ‘희망새미 봉사단’ 9명은 거제시와 협력해 둔덕면 피해 농가 현장에 투입된 복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수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 농경지의 토사 및 잔해물 제거, 물에 잠긴 농자재 정리, 침수 흔적 주변 환경정비 등 농가 일손을 도왔다.

활동에 앞서 두 차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위험구역 진입을 통제하는 등 무재해 운 아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봉사는 재난복구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봉사단은 체류 기간 숙박·식 등을 거제지역 업체에서 소비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역 소비를 통해 피해 상·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봉사를 계기로 재난복구 지원과 지역소비를 연계한 ‘복구·상생 연계형 사회공헌’을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하려면 광고를 시청하세요